

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	<h1>KBCH 브리핑</h1>	배포번호 2020-02
	<h2>2019 대국민 LMO 인식조사 결과</h2>	
	배포일 : 2020년 1월 31일 작성자 : 이효석(KBCH)	

※ 이 브리핑은 “KBCH 2019 대국민 LMO 인식조사” 결과를 주요 기반으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대국민 LMO 인식조사 전체 결과는 바이오안전성포탈 (www.biosafety.or.kr)- 현황 및 통계 - 인식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조사 목적 및 개요

1) LMO 대국민 인식조사 목적

LMO에 대한 인식과 태도, 정보접촉 실태 및 지식수준, 관련 법/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, 2019년 LMO 및 생명공학기술 규제 관련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

2) 조사 개요

□ 조사 설계

- 조사대상 : 만 19세 ~ 64세의 성인남녀
- 조사지역 및 표본 : 전국(세종, 제주 제외)/ 800명
- 표본추출방법 : 인구분포에 의한 지역별/ 성별/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법
- 자료수집방법 :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
- 조사기간 : 2019년 11월 13일 ~ 28일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 $\pm 3.46\%$

□ 조사 내용

- LMO 인지도, LMO 이해정도, 관련용어 인지도
-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동의 정도, 규제, 영향성 등 태도, 위험에 대한 인식
- LMO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련법령 인지 여부
- GM식품 및 GMO 표시제에 대한 인지 및 태도
- LMO 정보접촉 실태 및 인식변화 여부
- 유전자가위 기술 인지, 정보획득, 규제에 대한 태도

2. 조사결과 및 분석

1) LMO에 대한 인지 및 지식수준

□ LMO에 대한 인지 및 이해정도

- 설문조사 대상의 85%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, ‘만 50세 이상’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- 이해정도는 약간 알고 있다(63.5%), 잘 알지 못한다(29.9%), 꽤 알고 있다(6.1%), 아주 많이 알고 있다(0.4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지난해 대비 꽤 알고 있다(+0.2%), 아주 많이 알고 있다(+0.1%)의 응답이 소폭 증가함

□ LMO 지식수준(KBCH 개발 생명공학 문항 14개 중 정답률)

- 평균 정답 개수는 5.6개로 지난 3년간 유사한 수준
-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, ‘대학재학 이상’, ‘LMO 관심이 높음’ 집단에서 지식수준이 높게 조사됨
- 국내 GM작물 상업적 재배 여부, GM쌀·GM밀 수입 여부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게 조사됨

2) LMO에 대한 인식 및 태도

□ 유전자변형기술의 도움 정도 및 이유

- 유전자변형기술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2.8%로 전년도 대비 7.7% 상승하여,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짐
 - 도움 이유로는 난치병 치료, 식량문제 해결,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이 높음
 - 비도움 이유로는 인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, 자연 섭리에 어긋남, 생태계 악영향이 높았음
- 응답자 특징으로는 20대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

□ LMO 안전성에 대한 태도

-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인체 안전성, 생태계 교란, 자연생태계에 악영향 순으로 우려가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우려 정도가 높았음
- 식품 안전이슈에서는 방사능 오염식품, 발암물질에 이어 GM식품에 대한 우려(19.8%)가 높게 조사됨

- 국내 수입·유통되는 GM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4.8%가 상승한 46.6%로 조사되었고, 안전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‘정부의 안전성심사와 안전관리’, ‘위해성을 입증한 사례가 없음’ 이 높게 조사됨
- 환경 이슈에서는 대기오염(20.6%), 방사능오염(16.6%), 기후변화(13.5%),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대(8.5%)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화학물질의 건강위험(8.3%), 미세플라스틱(8.1%)과 비슷한 수준임
- GM작물의 구매 의향은 35.5%(2018년 31.3%)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, 구매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중 46%는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
-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상품 구매의향은 조건에 따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74.9%로 조사(상관없이 구매 1.8%, 절대 구입 안 함 23.4%)되었고 구매의향 조건은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 GMO(73.1%), 가격이 저렴한 경우(31.6%), GMO 함량이 낮은 경우(22.9%) 순으로 나타남

□ 규제/영향성/이용에 대한 태도

- 규제 필요성 항목들의 평균 응답은 84.8%로 전년과 유사
- 영향성/이용, 연구개발/수출입 관련 항목들은 소폭 긍정의견 상승
- LMO가 혜택을 준다는 응답은 ‘연령층이 낮을수록’ 높아지는 경향

3) LMO 관심 및 정보접촉 실태

- LMO에 관심정도(관심있음 25.3%)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관심 이유로는 ‘안전성에 대한 의문’이 가장 높음
- 정보접촉 및 검색 등을 통한 직접 정보획득 빈도는 증가 추세
 - 정보접촉 빈도가 높은 매체는 인터넷 뉴스, TV, 주변 사람 순
 - LMO 정보접촉이 높을수록 유전자변형기술 활용에 대해 비허용적
 - 정보접촉 시에는 정보의 정확성, 깊이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
 -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

3) 최근 주요 이슈

- GMO 표시제에 대한 인지는 36.4%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
 - GMO 표시제 예외사항에 대한 인지율은 74.9%, 세부사항을 정확히 인지하는 응답은 저조
 - 조사대상자의 84.9%는 GMO 표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
 - 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 비율은 60.4%로 증가 추세임
-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인지는 37.5%로 지난해 대비 5.9% 상승
 -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의약/의료(74.6%), 산업바이오(66.0%) 분야가 식품/농산물(50.0%), 축산(45.5%)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-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4.5%, 그 이유로는 ‘의도치 않은 유전자 변형’, ‘기술의 안전성’ 이 높게 조사됨

3. 시사점

- 유전자변형기술의 긍정적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
 - 유전자변형기술이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상승
 - 국내 연구개발 필요(+2.5%), 국내 GM작물 재배필요(+5.3%)
 - 반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임
- 연령층에 따른 지식수준, LMO 인식 및 태도에 차이를 보임
 -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지식수준이 높고 20대 층에서 유전자변형 기술이 인류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LMO 안전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20대,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음
- 생명공학기술(유전자변형기술, 유전자가위 기술) 응용 공감도는 의료·의약, 산업 분야가 농업·축산 분야가 높은 것이 확인됨
-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및 정보 정확성 강화 필요
 - 인터넷 뉴스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
 - 정확한 정보, 깊이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확인됨

첨부 : 주요 조사결과 그래프